
취 임 사

2018. 6. 5.

 신용보증기금

I

취임소감

신용보증기금 임직원 여러분,
신임이사장 윤 대희입니다.

오늘부터 국내 최고 정책금융기관인
신보의 가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에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재임기간 동안
신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황 록 전 이사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Ⅱ 그간 신보의 역할에 대한 평가

신보 가족 여러분!

어느덧 신보가 설립된 지 4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신보는 중소기업의 동반자로
가장 앞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 달려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큰 힘이 되어 주는 믿음직한 친구였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해 한국경제를 굳건히 지켜내는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처럼 40여년 세월동안 우리 경제의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신보 임직원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Ⅲ

경영환경 분석 및 경영방침 제언

신보 가족 여러분!

우리 경제는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환율변동성 증가 등으로 불확실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간 융합과 신시장 등장에 따라 대기업은 과감한 사업재편을 통해 플랫폼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으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보를 위협하는 변혁의 물결도 세차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한 연대보증인 전면 폐지와 핀테크로 대표되는 금융의 디지털화는 신보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처럼
우리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살피고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신보의 지향점이자 핵심가치는
바로 고객인 ‘중소기업’입니다.

경제 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바꾸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신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강소기업으로 집중·육성하여
우리경제의 조연이 아닌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향후 구체적인 업무추진계획은
임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추진할
몇 가지 경영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 생태계' 조성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실패 후에도
재도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성장잠재력 있는 혁신 스타트업 선별과
보증, 보험, 컨설팅 등을 아우르는 융·복합지원에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과 新산업 스타트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성장통을 극복하고
중소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창업 이후 지속가능하고 건실한 성장을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사전 구조조정을 강화하여
구조적인 체질개선도 병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실패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도전·재창업 환경을 더욱 개선하여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고객 만족과 글로벌 신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첫 직장으로 서울은행신용조사부에서 일했습니다.
기업 생존과 직결된 신용조사를 제대로 받고자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하던 기업 관계자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신보는 힘들고 절박한 중소기업이
언제든지 찾아와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투철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성심성의를 다하여
중소기업을 위하고 봉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KSP*사업에도 오랫동안 참여했습니다.
많은 개도국들이 한국의 신용보증제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도국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성장 노하우입니다.

* Knowledge Sharing Program : 지식공유사업

신보는 신용보증제도의 해외전수(KSP)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개도국에 대한 신용보증제도 전수를 통해
해외로부터도 인정받는 글로벌 정책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야 합니다.

최근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해결책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신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사업계획 수립부터 실행·평가 등 전 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신보의 사업수행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경영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시장논리에 치우쳐진 부분을 바로 잡아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등을 아우르는
포용적 금융정책을 주도해야 합니다.

끝으로 행복한 직원,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듭시다.

행복한 직원이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원의 행복이 곧 기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소통이 잘되는 열린 조직문화를 만들어
다 함께 만족하며 일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갑시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주어지도록 노력하며,
회사 일과 개인의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근무와 휴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행복한 신보를 만들기 위해 대화와 소통으로
노동조합과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보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저도 여러분과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기쁜 일은 같이 웃고 슬픈 일은 서로 위로하며
희로애락을 함께 합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큰 공처럼 때로 뭉치는
생존전략을 'Fish ball'이라 하지요.

정어리 같은 작은 물고기들은 포식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참치 같은 포식자들은 효과적인 사냥을 위해
하나로 뭉칩니다.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경제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신보도 거센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신보 가족 모두는
하나로 뭉쳐서 다가오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한편,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통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사회를 위해
시장과 사회적 가치가 공존하는 경제를 위해
우리 신보가 먼저 나섭시다.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신보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5일

이사장 윤대희